민주-신당 黨대黨 통합 사실상 타결

통합수임기구 전권 위임·공동대표 체제 도입

범여권 단계적 통합 가능성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과의 '당 대 당' 통합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르면 1일이나 3일께 협상 타결이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단 범여권의 통합 수순은 민주당과 통합신당과의 소통합이 이뤄진 뒤 열린우리당 2차 탈당파 등과의 단계적 통합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협상 대표인 최인기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몇가지 쟁점 사항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주 내에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양측간의 사소한 이견이 해소되는대로 협상 타결을 밝힐 예정"이라며 "다만 1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의에서는 협상 타결을 선언하기 보다는 양측간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협상이라는 것이 쌍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100%로 협상이 타결됐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90% 이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대부분의 쟁점 사항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협상 내용에 따르면 양당은 각기 통합수임기구에 합당의 전권을 위임하고 수임기구간 합동회의를 거쳐 합당을 결의하는 신설합당 방식으로 통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도체제 문제도 박상천 민주당 대표와 김한길 통합신당 대표의 공동대표 체제로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당 명칭으로는 '통합민주당' '중도개혁민주당'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박상천 대표가 너무 일방적으로 소통합을 추진했다는 반발 움직임이 있는데다 중도개혁통합신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측의 특정세력 배제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최종적인 내부 합의점 도출이 협상 타결의 마지막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열린우리당의 2차 탈당이 가시화되고 소통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기득권 및 주도권 상실을 우려한 양측이 발빠르게 통합 협상을 타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양측의 통합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 같다"며 "그러나 그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양측간의 통합 협상이 갑자기 급물살을 탄 것은 소통합 등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입지가 좁아진 양측 지도부가 추후 통합협상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서로 한 걸름씩 양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굴삭기 운전하는 손학규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도 평택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중소기업직업훈련기관을 방문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직접 굴삭기를 운전해 보고 있다. /연합뉴스

"스몰3 단일화 하자"

홍준표 "경선 중도포기 안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 뒤늦게 합류한 홍준표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과 함께 이른바 '스몰 3'로 분류되는 원희룡, 고진화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6월 말에서 7월 중순 사이에 '스몰 3'로 불리는 나와 소장파 후보 2명 사이에 단일화를 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3강 구도가 형성되면서 경선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소장파의 리더격인 남경필 의원을 만나 이 같은 의사를 원희룡, 고진화 의원에게 전달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혀 두 의원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홍 의원은 또 "경선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3강 구도가 모양이 좋은데 아무래도 (원희룡, 고진화 의원보다) 내가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최근 방영되는 한 드라마에서 자신과 동명인 한 주인공이 불륜남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해 "드라마 제작진에게 내가 평생 살아도 그런 문제 없이 사는데 왜 사람을 비겁하게 만드느냐, 홍준표라는 이름이 흔한 것도 아닌 데라며 항의했다"고 밝혀 이 드라마로 인한 자신의 이미지 손상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토로했다. /연합뉴스

孫, 범여 동조세력 구축 본격화

우리당 수도권 의원 중심

5월 들어 30여명과 접촉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범여권 정당 지도부나 대선주자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초.재선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독자세력 확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탈당 석달째에 접어든 손 전 지사가 열린우리당 내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폭넓은 만남을 이어가면서 공감대 확산에 나서고 있는 것. 그가 5월 들어 만난 우리당 의원들만 30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만남은 우리당 내에서 손 전 지사에게 우호적인 김부겸 안영근 조정식 신학용 한광원 의원 등이 적극 주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지사가 지난달 29일 인천대 강연 전 송영길 안영근 문병호 김교흥 신학용 한광원 의원 등 우리당 인천 지역 의원들과 오찬을 한 게 대표적인 사례.

수도권 외 지역 의원들 중에는 충북 충주의 이시종, 광주의 김동철 의원 등이 손 전 지사와 개별적인 만남을 가졌고 386 의원들인 우상호 오영식 의원이나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각각 손 전 지사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범여권은 손 전 지사가 범여권 인사와의 접촉 확대에 나선 것을 두고 본격적인 세규합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위원장 박희태·부위원장 전석홍 등 10명

李, '매머드급 선대위' 발족

이재오 백의종군 막후 좌장역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지난달 31일 경선대책위원회를 공식 발족, 경선 레이스를 위한 체제정비를 완료했다.

박형준 캠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부의장을 지낸 5선의 박희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 조직 및 참여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재오 최고위원은 당지도부 일원이 캠프 중책을 맡는다는 비난여론을 의식, 특정 직책은 맡지 않은 채 막후에서 실질적 좌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명박 선대위'는 위원장을 보필하며 경선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갈 부위원장단에 3선의 중진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키는 한편, 지역 몫과 여성 몫을 골고루 반영해 균형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우선 10명으로 구성된 부위원장단에는 이재창 김광원 권철현 안택수 이윤성 정의화 임인배 권오을 의원 등 3선 의원 8명과 정책위의장을 지낸 재선의 전재희 의원, 전남지사를 지낸 전석홍 전 의원이 포함됐다. 전 전 의원은 호남표를 의식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부위원장단에 포함된 10명의 중진 가운데 5명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장인 권철현 부위원장은 후보의 정무와 정책기능을 보좌하는 후보특보단장을 겸임한다.

지난달 31일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선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박희태 의원. /연합뉴스

후보 비서실장에는 '불심(佛心)'을 겨냥해 특별영입한 주호영 의원이 임명됐고, 대변인은 박형준 진수희 의원과 장광근 전 의원 트로이카 체제로 최종 확정됐다. 대변인 산하 공보단 단장에는 배용수 전 국회도서관장이 기용됐다.

분야별 위원장은 ▲언론위원장 최규철 전 동아일보 논설주간 ▲법률지원위원장 최병국 의원 ▲대외협력위원장 정의화 의원 ▲기획위원장 김광원 의원 ▲정책기획위원장 권오을 의원 ▲청년위원장 김양수 의원 ▲조직위원장 이방호 의원 ▲조직기획본부장 정병국 의원 ▲직능위원장 임인배 의원 ▲TV토론대책위원장 고흥길 의원 등이 임명됐다. 이 전 시장은 이날 16개 시도 선대위원장도 함께 발표했다. 그러나 광주, 전남, 전북, 경북지역 선대위원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2차 명단공개 때 발표키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명박 경선대책위원회 조직

후보	이명박
위원장	박희태
부위원장	이재창, 김광원, 권철현, 안택수, 이윤성, 정의화, 임인배, 권오을, 전재희, 전석홍
대변인 공보단장	박형준, 진수희, 장광근 배용수
언론위원장 미디어홍보위원장 TV토론대책위원장 인터넷위원장	최규철 이윤성(차명진) 고흥길(박찬숙) 심재철(정태근)
법률지원위원장 기획위원장 정책기획위원장 청년위원장	최병국(지원단장 은진수) 김광원(정두언) 권오을(윤건영, 이재웅, 김석준) 김양수
조직위원장 조직기획본부장 직능위원장 중소기업대책위원장	이방호(안경률, 이춘식) 정병국, 김기현 임인배 최동규
지역 선대위원장	서울-공성진, 정두언 (현경병, 이계명, 강동호, 이원창) 부산-안경률(박승환) 대구-안택수(이명규) 인천-이윤성(이원복) 대전-김칠환(이인혁, 김영관) 울산-최병국(김기현) 경기-고흥길 (정병국, 심재철, 차명진) 강원-허천(최동규) 충북-심규철, 오성균(오장세) 충남-(전용학) 전북-(김효성) 전남-(전양환) 경북-(권오을) 경남-이방호 (김재경, 김영덕, 김양수) 제주-변정일(김동완)

※( )는 본부장

지역구 의원 없고 호남 인연 현역은 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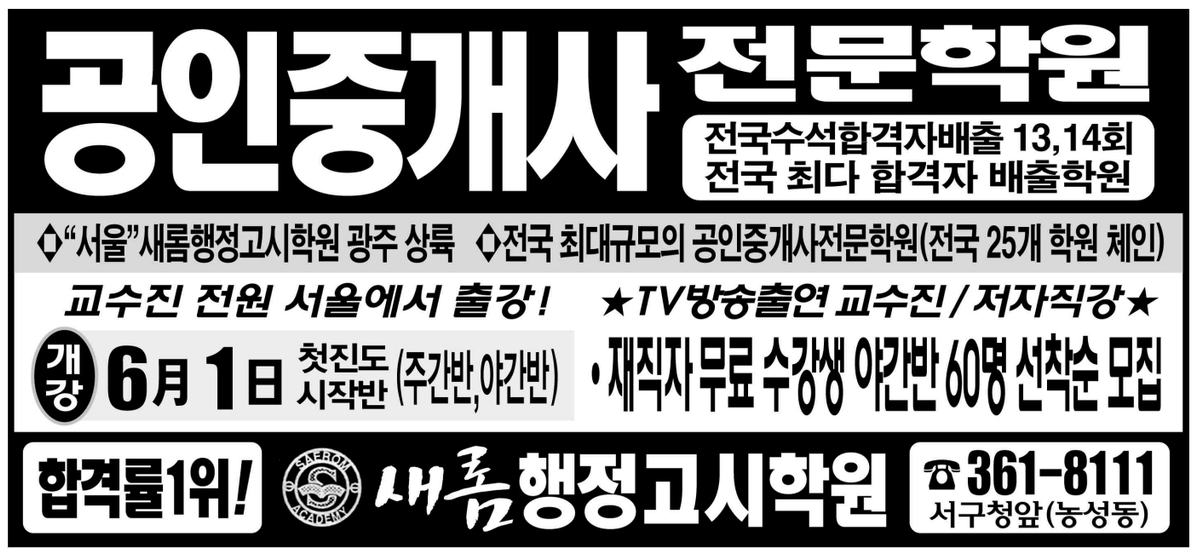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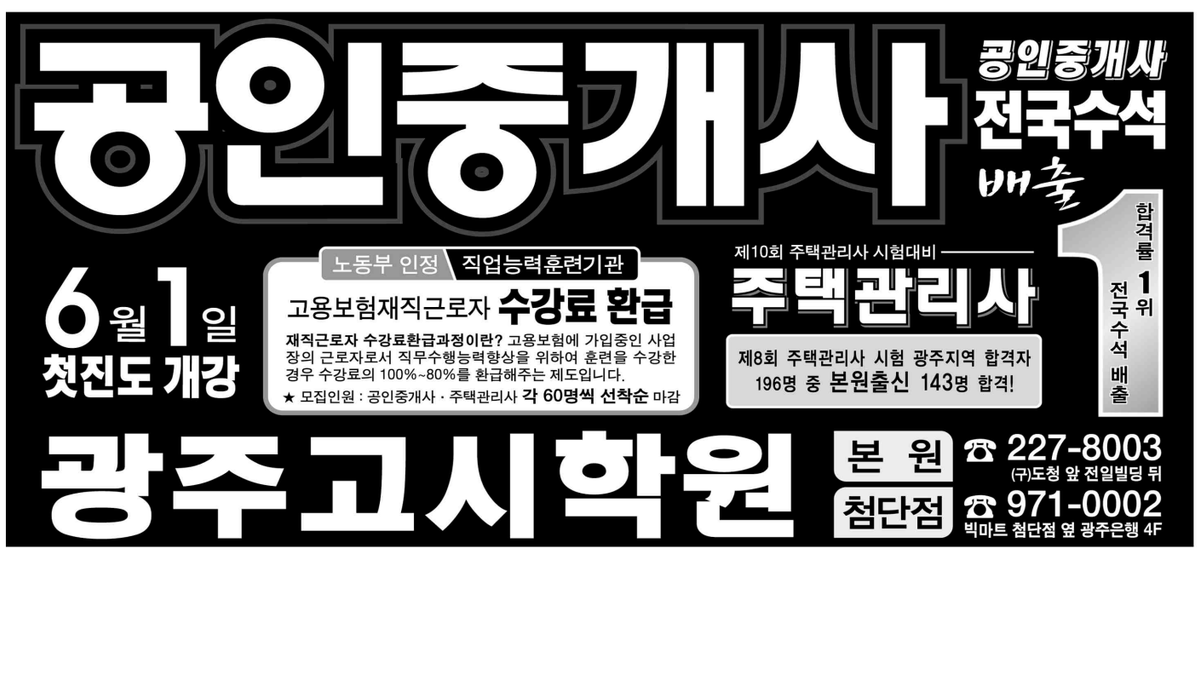
■ 李 캠프 광주·전남북 선대위장 왜 빠졌나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지난달 31일 국회 부의장을 지낸 5선의 박희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매머드급 경선대책위원회를 공식 발족, 경선 레이스를 위한 체제 정비를 완료했다.

그러나 전국 16개 시·도 선대위원장 가운데 광주·전남과 전북의 위원장은 아직 공석으로 남겨져 있어 그 배경은 물론, 과연 누가 호남지역 이명박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 전남에 위원장 대신 본부장으로 전양환(57)씨를 선임했다. 전씨는 한나라당 정당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시장 핵심 관계자는 이날 "당초 한나라당에 호남이 지역구인 의원이 없다는 점에서 정의화 의원 등 호남 지역과 인연이 깊은 현역 의원들을 광주·전남과 전북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려 했으나 본인들이 고사한데다 지역 사정에 정통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선대위원장 임명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또한, 현역의원이 아닌 일반 인사 가운데서는 광주·전남 및 전북의 선대위원장을 맡을 정치적 역량과 무게감이 있는 분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또 비중있는 지역 명망가들은 한나라당 선대위원장직을 고사하고 있어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광주·전남 및 전북지역 선대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깜짝 놀랄만한 인사와 접촉중이므로 기대를 가져도 좋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